

조계종 예산 800억원 시대 돌입

불기 2562(2018)년 중앙총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이 일반회계 269억5800만원, 특별회계 558억2450만원 등 총 827억825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120억원 가량 증가한 규모로, 종단 예산규모가 처음으로 800억원이 넘는 시대를 맞게 됐다. 향후 제35대 집행부는 이같은 예산을 바탕으로 총반산 성역화 불사, 신도시 포교 불사, 승려복지사업 등 종단 목적사업 일반회계항을 위한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은 지난 10월26일 “제35대 집행부 출범을 앞두고 주요 목적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편성한 것이 특징”이라며 “전체적으로 동결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또 “신도시시설건립 사업 등이 마무리 되는 오는 2020년

신도시 포교 목적불사 매진 일반·특별 269억·558억원 성보환수기금 신규 편성

까지 특별회계 예산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신도시 핵심포교 거점 도량 건립사업은 내년에도 활발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신도시시설건립 특별회계는 19억9260만원 증액된 115억4760만원으로 편성됐다. 위례신도시 종교용지 1부지 내 들어서게 될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설건립 공사에 착수한다.

기획실은 “그동안은 종단이 종교용지와

관련해 손을 못 대다시피 했는데, 33·34대 집행부가 종단 차원의 목적불사를 위해 다방면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면서 “35대 집행부는 시설에 대한 운영관련 정책들을 결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중앙분담금이 2017년보다 12억원 가량 증액된 부분도 눈에 띈다. 2018년에 56억5900만원이 편성됐으며, 올해 대비 29.2%가 증가한 수치다. 이는 34대 집행부 노력으로 사찰 분담금 제도가 20여 년 만에 전면 개편된 데 따른 것이다. 성보환수기금 4억원을 재무부 예산에 신규로 편성함에 따라, 도난 등으로 제자리를 잃은 성보환수 활동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예산안은 11월1일 개원하는 제209회 중앙총회 정기회에서 논의된 뒤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교육부장 진광스님·불학연구소장 대안스님

교육원·문화사업단 인사단행

종단의 승가교육을 책임질 교육부장에 진광스님이 임명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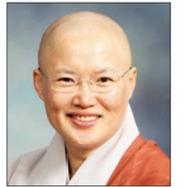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스님은 지난 10월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집무실에서 교육부장에 진광스님, 불학연구소장에 대안스님을 각각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진광스님은 법장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4년 사미계를 1998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총무원 사서국장, 교육원 연수국장, 교육국장, 교육부장 권한대행 등을 역임했다. 대안스님은 법경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6년 사미니계, 1991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조계종 사찰음식담당 특보, 연등회보존위원회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앞서 10월24일 총무원장 지승스님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에 묘인스님, 사업국장에는 탄덕스님을 각각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사무국장 묘인스님은 법승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1998년 사미계, 2003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구미 화엄암사 주지를 역임했다. 사업국장 탄덕스님은 자승스님을 은사



진광스님



대안스님



묘인스님



탄덕스님

로 출가했으며 1999년 사미계, 2006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동국대 불교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 국제선센터 총무, 경기도 광주 백련암 총무를 역임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이성진 기자 sj0478@ibulgyo.com

젊은 스님들 ‘전법사’로 세상 나선다

종령 통과...계층 지역포교 담당

종단 소속 스님들이 실제 포교현장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전법사(傳法師) 제도가 본격 실시된다. 조계종 총무원은 ‘전법사 위촉 및 지원에 관한 령’ 제정안을 지난 10월25일 중앙총회에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스님들을 대상으로 전법사 자격이 부여될 전망이다.

전법사는 2급과 1급으로 구분된다. 2급은 기본교육과정에서 4.5만점에 3.0 이상을 받은 스님으로, 재학 중 사찰과 불교단체, 지역사회 등의 범회에서 교화 혹은 봉사활동을 한 경험

이 있으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특히 종단이 주최한 학인실법대회 등에 참가한 경력이 있어도 가능하다. 1급 전법사는 2급 전법사로 위촉 받은 이후 활발한 전법포교활동을 진행하는 동시에 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을 갖춘 스님이 자격을 얻는다.

전법사 제도를 운용할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스님)은 향후 신도포교 및 계층별 지역별 전법과 미디어를 활용한 전법, 해외지역 등에서의 전법을 전법사에게 주체적으로 맡겨 종단의 포교역량을 크게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원 교육부장 진광스님은 지난 10월25일 기자간담회에서 “젊은 스님들에게 전법포교

에 대한 원력을 북돋우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전법사 제도를 마련했다”며 “우수 전법사에게는 장학금 선발 및 종단연수교육에서 특전을 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총무원회에서는 각 교구별로 출가지도법사를 임명해 행자들의 사찰생활 적응을 돕는 ‘행자교육 운영에 관한 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와 함께 6개월 이상 외국에 머무른 스님에게 당해 연도 연수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하는 ‘승려연수교육에 관한 령’ 개정안도 가결됐다.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스님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취지다.

장영성 기자 fuel@ibulgyo.com

동국대 정각원장에 묘주스님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자광스님은 지난 10월24일 본관 4층 이사장실에서 중앙총회의원 묘주스님(사진)을 신임 정각원장에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기는 오는 11월1일부터 2년간이다.

이날 임명식에서 이사장 자광스님은 “원만하고 포용심이 많은 묘주스님이 정각원장 소임을 맡아서 총장 스님을 중심으로 동국대 구성원들의 신심을 잘 길러주시길 바란다”고 축하 인사를 건넸다. 이에 묘주스님은 “부족하지만 기대



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묘주스님은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불교학과 인도불교전공 석·박사 학위과정을 마쳤다. 동국대 불교학부 겸임교수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제16대 중앙총회의원과 익산 연곡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이성진 기자 sj0478@ibulgyo.com

백담사 무문관으로 가는 자승스님

‘체로금풍 자승스님’ <면애 이어>

이제 자승스님은 ‘중도의 한 사람’으로 돌아간다. 이번 겨울 동안, 인제 백담사에 방부를 들이 계획이다. 3개월간 비좁은 독방 안에서 화두를 드는 무문관(無門關)이다. 사연이 있다. 20대 중반 그 재대를 하고서 백담사 산내 암자인 봉정암에 올라가 하루 네 차례에 걸쳐 정근기도를 했다. 스님은 기자간담회에서 “그때만 해도 봉정암에는 인법당, 대피소, 화장실 등이 전무였다”며 “10월 초가 되면 사람들도 다 철수하는데, 혼자 5개월 동안 하루 8시간 기도했다”고 회상했다. 우리는 이때 으레 초발심(初發心)을 이야기한다.

“비구니 스님들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 ‘길’에서 찍었을 때다. 야심차게 개봉했는데 반응이 별로였다. 그러던 중 우연히 영화를 보게

된 자승스님이 ‘이런 영화는 불교계에서 봐줘야 한다’고 하셨다고 하더라. 그리고 바로 다음날 교계 언론 편집국장들을 모으셨다. 그때 그 도음이 없었으면 영화는 대중에 알려지지 않았을 거다. 그럼에도 스님은 농담오라도 생색 한번 내지 않으셨다. 그레도 땀에는 너무 고마워서 총무원에 띄어라도 드리려고 했다. ‘우리는 딱 좋아하지 않으니 안 해도 된다’는 대답. 본인 어떤 일을 할 때 이후의 보상을 염두에 두지 않고 행동하시는 분이려는 생각이 들었다.”(영화 ‘노무현입니다’ 이창재 감독)

공교롭게도 스님이 물러나는 시간은 가을이다. 선가(禪歌)에는 체로금풍(體露金風)이란 고사가 전한다. 가을 찬바람이 잎이 다 떨어져 나무가 본래면목을 드러낸다는 의미다. 다 내주고 홀연히 떠난다고 해도 그리 아색하지 않은 뒷모습이다. 그리고 낙담은 다시 종단의 뿌리 돌이킨다.

불교학술 저변 확대 ‘청신호’



이성수 기자의
현장에서
soolee@ibulgyo.com

지난 10월 14일, 동국대 신공학관 4층 대강당이 정중으로 가득 찼다. 빈자리를 찾기 힘들었다. 참석자들도 다양했다. 불교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연구자는 물론 스님과 재가자들이 고루 분포했다. 연령도 20대부터 70대까지 넓었다.

불교학연구회가 올 가을부터 겨울까지 야심차게 준비한 ‘깨달음의 논쟁’을 다루는 첫 번째 학술연찬회였다. 전문학자들과 대학원생

이 대부분 참여하는 일반 학술대회와는 사뭇 풍광이 달랐다. 주제 발표와 토론이 끝난 후 질의 응답 순서에서는 객석에서 일어나서 손을 들었다. 한 참석자는 “불교는 깨달음을 성취하는 종교이지만, 깨달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이들이 많지 않고 이견(異見)도 분분하다”면서 “<불교신문>을 통해 이번 학술연찬회 소식을 듣고 참석해 학자들의 입장을 들어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최종남 불교학연구회장은 “승승을 떠나 많은 분들이 깨달음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있고, 직접 수행하는 분들이 참여해 좋은 연찬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다른 세미나에 비해 많은 분들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좀 더 호응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전했다.

불교학연구회는 11월과 12월에도 2,3차 학술연찬회를 열어 ‘깨달음의 논쟁’을 이어가고, 겨울워킹숍에서는 그동안의 연찬회 내용을 근간으로 ‘깨달음의 논쟁’을 벌일 계획이다. 1980~90년대 돈오점수(頓悟漸修) 돈오돈수(頓悟頓修), 지난해 해오(解悟) 증오(證悟) 논쟁에 이어 다시 제기된 ‘깨달음의 논쟁’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의욕적으로 준비하고 대중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이번 ‘깨달음의 논쟁’이 건전하고 활발한 토론으로 불교의 정수(精髓)인 깨달음을 조명하는데 일조하리라 믿는다. 불교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초석 가운데 하나가 불교학의 발전과 저변 확대라는 점에서 깨달음 논쟁뿐 아니라 불교학술 행사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평화와 희망을 한반도에!!!”

108군법당 찾아

평화와 희망을 수놓다



선묵해자 스님과 108군법당 찾아 ‘평화의 불’ 봉안하고 108염주 만들어가는 108평화순례단은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국군용사들에게 마음에 평화를 심어주고, 가정에는 행복을, 이웃에는 나눔을, 사회에는 소통을, 국가에는 안정을, 한반도에는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불교신행단체입니다.



108평화순례단이 찾아 갈 108군법당

- 육군: 국방원령사(국방부) 계통호국사(계룡대) 통일호국사(기무사) 호국의왕사(의무사) 화랑호국사(육사) 호국자운사(교육사) 호국대성사(군수사) 호국금원사(보급단) 호국비승사(장악사) 호국충정사(수행사) 호국사자사(특전사) 호국록포사(13중수) 호국남성사(충경교) 호국학림사(학군교) 충성호국사(삼사) 호국무기사(보병학교) 호국충국사(부사관학교) 호국연무사(육군훈련소) 호국법원사(중군교) 호국충용사(과훈단) 호국무극사(미사일사) 호국법정사(1군사) 호국무열사(2익사) 호국신봉사(3군사) 호국충의사(수도군단) 호국일승사(1군단) 호국평생사(2군단) 호국평암사(3군단) 호국금강사(5군단) 호국봉암사(6군단) 호국신승사(7군단) 호국충용사(8군단) 호국충정사(9군단) 호국충정사(10군단) 호국충정사(11군단) 호국충정사(12군단) 호국충정사(13군단) 호국충정사(14군단) 호국충정사(15군단) 호국충정사(16군단) 호국충정사(17군단) 호국충정사(18군단) 호국충정사(19군단) 호국충정사(20군단) 호국충정사(21군단) 호국충정사(22군단) 호국충정사(23군단) 호국충정사(24군단) 호국충정사(25군단) 호국충정사(26군단) 호국충정사(27군단) 호국충정사(28군단) 호국충정사(29군단) 호국충정사(30군단) 호국충정사(31군단) 호국충정사(32군단) 호국충정사(33군단) 호국충정사(34군단) 호국충정사(35군단) 호국충정사(36군단) 호국충정사(37군단) 호국충정사(38군단) 호국충정사(39군단) 호국충정사(40군단) 호국충정사(41군단) 호국충정사(42군단) 호국충정사(43군단) 호국충정사(44군단) 호국충정사(45군단) 호국충정사(46군단) 호국충정사(47군단) 호국충정사(48군단) 호국충정사(49군단) 호국충정사(50군단) 호국충정사(51군단) 호국충정사(52군단) 호국충정사(53군단) 호국충정사(54군단) 호국충정사(55군단) 호국충정사(56군단) 호국충정사(57군단) 호국충정사(58군단) 호국충정사(59군단) 호국충정사(60군단)
- 해군: 호국충정사(경보사) 호국해운사(적진사) 호국해안사(진기사) 호국충정사(교육사) 진해호국사(해사) 호국충정사(해병대사) 호국해운사(해병1사단) 호국충정사(해병2사단) 호국충정사(해병6사단) 호국충정사(해군6전단) 호국충정사(해병교육단) 호국충정사(1함대) 호국충정사(2함대) 호국충정사(3함대) 호국충정사(인방사) 호국충정사(해병9사단) 호국충정사(제주기사) 연평호국사(연평부대) 호국충정사(제정대)
- 공군: 성무호국사(공사) 충국성봉사(교육사) 호국충정사(적진사) 성무일승사(군수사) 호국충정사(1전비) 기흥호국사(3호비) 호국보국사(5전비) 호국미타사(8전비) 호국화성사(10전비) 호국경각사(15전비) 호국비룡사(16전비) 호국영축사(17전비) 호국충정사(18전비) 호국충정사(19전비) 호국충정사(20전비) 보리매법당(영공안진단)



선묵해자 스님과 108군법당 찾아 평화의 불 봉안하는
108 평화순례단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 308(상계동) 3층 108산사순례기도회 www.108sansa.com

108평화순례단 회원가입문의 ☎ (02)936-5936, (02)900-0193